

# 프랑스철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이정우 외 지음 《프랑스철학과 우리》를 읽고

허경

강원대 강사 · 철학

90년대 이전 한국의 서양철학계는 크게 보아 독일어권의 해석학적 비판철학, 영미권의 분석/과학철학과 그의 비제도권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으로 거칠게 삼분될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 도입된 프랑스철학은 이러한 기존의 삼각 구도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프랑스철학은 최소한 우리 사회의 갖가지 이론적·실천적 논쟁의 주요한 참여자들 중 하나로 일정한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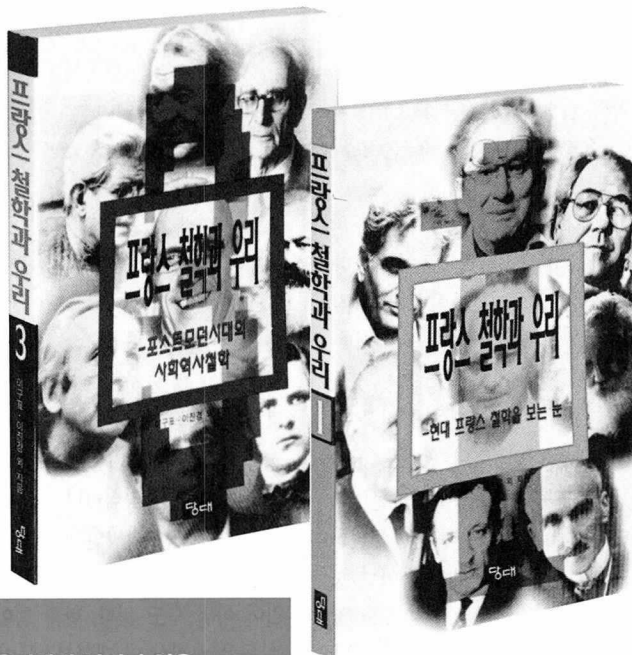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프랑스철학이 국내에 급작스레 엄청난 양으로 도입되었던 하나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 일군의 문예비평가들을 중심으로 한 — 미국 학자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우연히도 프랑스 철학은 우리에게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시에 도래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프랑스철학은 무엇보다도 미국 학계의 대체적 승인이라는 국제적 상황과 마르크스주의 몰락의 충격에 의한 일정한 사상적 공백이라는 국내적 상황의 절묘한 결합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단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랑스철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의 프랑스철학 수용에 관련된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프랑스철학이야말로 우리가 그 수용의 시작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수용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던 —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 최초의 외래 철학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철학의 본격적 도래와 수용은 기껏해야 겨우 10년 안쪽의 일인 것이다. 문제는 다시 한번 오직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철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고 이용할 것인가? 우리는 프랑스철학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유행으로서의 학문'을 뒤로 하고 프랑스철학의 실내용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유행으로서의 학문'을 뒤로 하고 프랑스 철학의 실제 내용과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구체적 함의에 대한 차분하고 진지한 성찰이다. 이 책들은 그런 관점에서 기획시점과 의도가 돋보인다.

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 혹은 가질 수 있는 — 구체적 함의들에 대한 차분하고 진지한 연구와 성찰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도서출판 당대에서 출간된 《프랑스철학과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기획 시점과 의도가 돋보이는 책이다. 책의 '일러두기'에 따르면, 이 기획은 원래 서강대 대학원 철학석사과정 (서강대학원 신문)이 96년부터 시작했던 '현대 프랑스철학의 전유(專有)'라는 기획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된 이 기획 중 현재 출간된 것은 1, 3권의 두 권이다. 이 책들은 각기 '현대 프랑스철학을 보는 눈',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역사철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9월에 출간될 나머지 2, 4권은 각기 '현대철학의 모험', '포스트모던시대의 미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1, 3권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권은 이 기획의 총론격으로 1부 '현대 프랑스 철학을 보는 눈', 2부 '현대 프랑스철학의 주제적 수용', 3부 '현대 프랑스철학의 인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3권은 그 제목에 걸맞게 1부 알튀세르, 2부 푸코, 3부 들뢰즈, 4부 부르디외 및 5부 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논문들을 5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의 순서는 3권의 기획·편집자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에 따른 대안의 모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프랑스철학의 미래

이러한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우리 논의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현대 '프랑스철학'을 보는 눈이다. 이 기획에 포함된 거의 모든 논문들은 이러한 기획 의도에 따라 새로이 씌어진 글들이라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서강대에서 있었던 주제발표와 좌담을 전제한 이정우·김성기의 <현대 프랑스철학을 보는 관점>과 김용동·심광현·양운덕·이정우·이진경의 <현대 프랑스사상의 한국적 이해와 수용>(이상 1권)은 프랑스철학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적절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글이다.

특히 전체 기획의 총론격으로 1권 1부의 맨처음에 수록된 이정우의 <프랑스 사유와 우리>는 프랑스사상의 여러 지적 계보들을 소개하고 있는 매우 유용한 글이다. (특히 이 글은 '외국어 해독 능력'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등한시되고 있는 —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이정우의 지적대

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관념과 사상만으로 이해하는 자는 '물리학자'로 불릴 수 없다. 그는 그것을 반드시 아인슈타인의 언어인 '수식(數式)'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불어 원전을 영어나 국어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추어 연구자'는 될 수 있어도 결코 프랑스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불릴 수 없다.)

한편 3권에 수록되어 각기 푸코와 부르디외의 사상에 대한 입문의 성격을 갖는 이정우의 <푸코의 사상적 배경과 방법>, 홍성민의 <아베투스, 그 존재론적 의미>는 흔치 않은 간결하고 정제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진경의 <푸코의 미시정치학에서 저항과 적대의 문제>와 이규표의 <담론 실천으로서의 푸코의 마르크스 읽기>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논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획에는 매권마다 해외 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 학자들의 깊이있는 논문이 2-3편씩 들어 있다. 알랭 르노의 <주체의 소멸과 개인의 도래>와 만프레드 프랑크의 <신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자크 비데의 <알튀세르의 <자본론>독해>, 이마무라 히토시의 <들뢰즈에서 마르크스로>, 알폰소 링기스의 <분절된 신체들의 사회>가 그것들이다.

우리는 프랑스철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자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다만 나는 그가 누구이든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는 그가 자신의 땅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프랑스철학의 미래는 오직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과 관계시킬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의 문제설정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온전히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철학과 우리》는 초심자들뿐만 아니라 전공자들에게도 시의 적절하며 유익한 하나의 문제제기로 평가될 수 있다. ◆

· 현대 프랑스철학을 보는 눈  
당대/A5신/286면/8000원  
· 포스트모던시대의 사회역사철학  
당대/A5신/360면/10,000원